박달 다듬이목으로 완성한 선재동자들

목조각장 허길량 세 번째 개인전 개최
'박달 다듬이목 53선재동자 · 동녀 되다'
아리수갤러리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53선지식 찾아 걷는 동자 모습 모티브
연화 든 동자 등 다양한 동자상 선보여
다양한 표정 동자상 얼굴 표현에 집중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허길량 作, 53 선재동자 · 동녀.

허길량 목조각장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리수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 '박달 다듬이목 53선재동자 · 동녀 되다' 를 개최한다.

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자동녀상 53점을 선보인다. 박달다듬이목을 소재로 한 허길량의 이번 동재동녀상은 53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걷는 천진난만한 동자의 모습을 모티브로 했다. 허 작가는 17년 전 박달다듬이목으로 조각한 108불 동자상을 완성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도록용 사진촬영 하루 전날 발생한 화재로 조각상을 모두 잃고 전시회를 열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허 작가가 17년 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불모로서의 발심과 원력을 회향한 뜻깊은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박달다듬이목에서 동자상으로 탈바꿈한 모습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진리를 옮긴 것으로, 천진무구한 동심을 바탕으로 53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택한 53동자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혜를 찾고 자비를 베풀어 극락왕생을 바라는 연화와 연잎을 든 동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과일 · 꽃 · 찻잔 · 정병을 든 동자, 천상의 동물과 노니는 학 · 호랑이 · 사자 · 봉황을 든 동자, 명부세계의 선악을 기록하는 붓 · 벼루 · 장부 등을 든 동자, 구도의 실천 행을 따르는 합장한 동자 등 다양한 지물과 표정을 갖춘 목동자상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동자상의 의미는 인성의 본체로서 순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대의 수호신으로서의 동자, 신라시대 미륵의 아기부처, 고려시대 수월관음과 선재동자, 조선전기 오대산 문수동자, 조선 후기 불교의 선악동자 등과 같이 불교의 교리적 임무와 대상이 되었으며, 동자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동심(童心)은 종교적 이상세계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허 작가는 동자의 순수성과 변함없는 박달나무의 작품을 추구했다. 재질의 강도가 가장 높은 박달다듬이목을 선택함으로써 기법의 난이도를 높여 작품 속에 '구도' 와 '정진' 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허 작가의 동자상은 정교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허 작가는 해맑음, 궁금함, 미소, 흥겨움, 놀람 등 다양한 표정을 표현하기 위해 동자상의 얼굴 표현에 집중했다. 그리고 손에 든 지물들을 다양하게 나타내어 그 사상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박달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 조각이 완성되고 표면의 박달나무 질감과 전통 옻칠을 결합했고, 많은 반복을 통해 최상의 정제칠을 올렸다. 그 효과로 박달나무와 옻칠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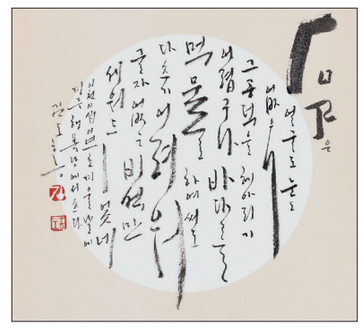
허 작가가 박달나무를 작품의 소재로 택한 이유는 특별하다. 한결같이 나무를 좋아했던 작가는 우리 산하의 소나무, 옛 마을의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기품을 갖춘 은행나무를 소재로 해왔으나 이번 전시 작품은 예로부터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박달나무를 소재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박달나무를 신성시하여 〈건국신화〉에도 단군왕검이 박달나무 아래서 신시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단군의 '단' 은 박달나무라는 뜻이다. 한국의 생활문화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재질이 무겁고 단단하며 변형이 없어 가구재 · 다듬이 · 조각재 · 곤봉 · 수레바퀴 · 홍두깨 · 방망이 등에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듬이목의 재료는 대다수가 박달나무이며 박달목 그 자체는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활문화에서 소외됐고,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골동으로 치부됐다. 그래서 작가는 박달목에 더욱 더 애착을 가지게 됐으며 오늘날 새로운 동자상을 탄생시켰다.

이번 허 작가의 53동자상은 평생을 목조각으로 조형성을 추구해온 허 작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오랜 숙련의 결과로써 작품의 표현과 표정에서 나타나듯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로써 그가 수행과도 같은 목조각은 공성으로 일체의 업과 번뇌를 떨쳐버리는 해탈의 길로 걷는 것과 같이 그의 작품 세계의 본질은 천계(天界)와 현실을 오가는 존재, 인간 대신 공양을 올리는 존재, 연화 화생하는 존재로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박달목 동자상은 매우 독창적이고 우리의 전통성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허길양은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을 인정받은 후, 첫 번째 개인전 '33관음 속으로(2002)' , 두번째 개인전 '소나무 비천되어(2014)' 와 같은 대작 전시를 개최했다.

제2회 도홍 김상지 서법전 개최

갤러리 경북 11월 23~29일
엑스포대공원 12월 24~28일


무의자 선사의 시.

서예가 김상지가 제2회 도홍 김상지 서법전 '귀어초심(歸於初心)' 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1차 전시 는 서울전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경북에서 열리고, 2차 전시는 경주전으로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2019년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서예공모전인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대상인 '대한민국 서예대상' 을 수상(최연수 수상자)한 후 후학양성과 소임을 병행하고 있다. 김 작가는 '귀어초심' 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서예, 현대서예, 캘리그라피, 전각 등 그 동안 발표해온 작품들과 최근 작품 등 60여 점을 선보인다.

'귀어초심' 이라는 뜻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가가 처음 붓을 잡았던 1998년 티끌 하나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붓을 잡고 공부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

김 작가의 은사인 홍법사 주지겸 회주 심산 스님은 증명에서 "서예가 김상지는 불심이 충만한 가정에서 태어나 근면 성실하게 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자 청년 서예가이다. 이제는 서예의 덕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서예가 김상지의 덕을 보게 하는 원력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고 격려했다.

김상지 작가는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대한민국천진서화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아동 · 청소년 화랑 서화 페스티벌(국제교류전) 운영위원장, 부산서화108인 초대전 기획 및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사단법인 한나래교육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사서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규모 기획전

현대문명 과학으로 '부처'를 본다

'백남준 효과(Paik Nam June Effet)'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다다익선 : 즐거운 협연'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백남준 作, 'TV붓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이 백남준을 기리는 2개의 전시를 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6전시실에서 '다다익선 : 즐거운 협연' ,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1,2 전시실 중앙홀에서 대규모 기획전 '백남준 효과(Paik Nam June Effet)' 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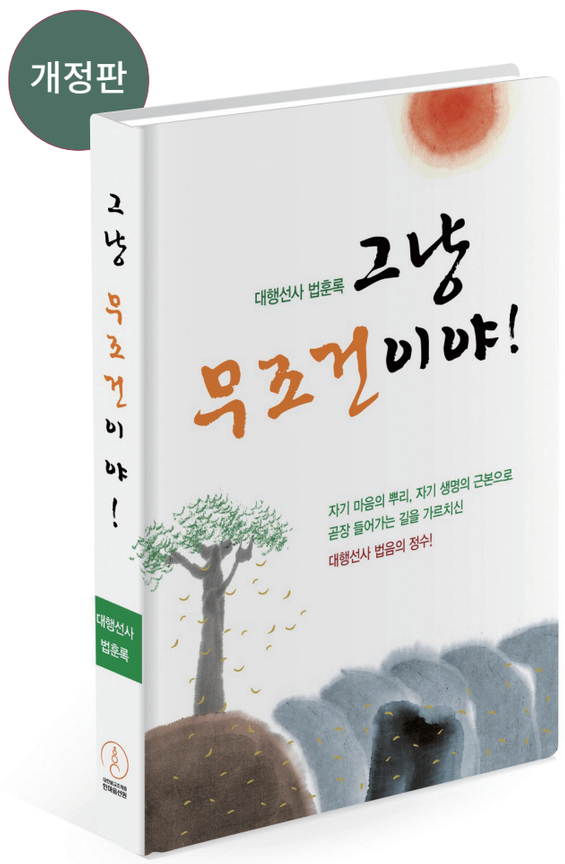
'다다익선:즐거운 협연' 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백남준의 '다다익선(1988)' 을 대대적으로 복원해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전시다. 1988년 9월 15일 백남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모니터 1003대를 이용한 대규모 영상설치작품 '다다익선' 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다익선' 의 제작 배경과 현재까지 작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아카이브(약 200여 점), 그의 작품세계와 관련 자료를 새롭게 해석한 작가들(백남준, 구보타 시게코 등)의 작품 20여점으로 구성했다.

'백남준 효과' 는 백남준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기획했던 역사적인 전시 '백남준 · 비디오때 · 비디오땅(1922)' ,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1993)' 의 주요 주제들을 통해 1990년대 한국미술의 상황을 새롭게 살펴보는 전시로, 백남준을 비롯해 총 27명의 작품 121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백남준의 작업들과 199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함께 병치하며 새로운 시대의 다음 장을 준비했던 이들의 복잡다단한 고민의 역사를 소환한다. 그럼으로써 근대적 희망과 세기말적 불안이 함께 타올랐던 1990년대의 한국적인 상황을 30년이 지난 현재로 불러들여 동시대의 대중과 함께 공유한다.

백남준은 장르 해체와 세계화의 바람으로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에서 절대적이고 불변이라고 여겨졌던 가치들이 상대적이고 덧없이 변해간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니터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절대 진리인 '제행무상' 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다익선' 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그의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하고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런 그의 생각의 근원은 불교의 세계관이다. 그의 작품들은 불교의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많다. 그의 작품 'TV 부처' 는 자화상 같은 작품으로,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가 모니터 속 자신의 환영을 응시한다. 미디어 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진실에 대한 성찰을 모색한다. 부처를 현대문명의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관객과의 소통과 참여,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낸다. 박재완 기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